

“북한, 트럼프 정부 초기 6차 핵실험 가능성”

이수석 안보연구원 실장 분석 “北, 트럼프와 협상 시도할 수도”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국내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연구실장은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실전배치 단계까지 도달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며 “2017년 초반에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 행태를 구사하며 재차 핵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북한은 오바마에 비하면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국(트럼프 행정부)과의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인사들을 임명하고 이들과 대북정책을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급하게 북핵문제를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실장은 “2017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대화 국면보다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당분간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 국면이라는 국내정치적 현실을 이용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전면대결 선포, 핵 억제력 강화, 도발 위협 등 초강경 표현으로 대남 위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은 “트럼프 정부는 초기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고강도 검증을 전제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선제공격도 불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 실장은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 그룹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같은 매파가 포진한 점에 주목하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오바마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농구팬 오바마, 조던 보고 함박 웃음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자유의 메달’ 시상식에서 수상자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을 보고 웃고 있다. 미국 최고 권위 시민상 자유의 메달은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분야에 뚜렷한 공헌을 남긴 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는 유명 방송인인 엘런 디제너러스,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톰 헉스, 로버트 레드포드, 가수 다이애나 로스, 야구중계 아나운서 빈 스컬리 등 21명이 상을 받았다.

킬링필드 핵심전범 37년 만의 단죄

캄보디아, 2명 종신�형 확정

최소 170만 명이 희생된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핵심전범 2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확정됐다.

양민 대학살을 자행한 크메르루주 정권이 1979년 붕괴한 지 37년 만에 킬링필드 주범 일부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 대법원은 23일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누온 체아(90)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5)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누온 체아와 키우 삼판은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 각각 2인자와 명목상의 지도자로서 강제 이주와 반대 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2014년 8월 1심에서



누온 체아 키우 삼판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크메르루주 정권 당시 처형과 기아, 고문 등으로 170만~22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판결로 단죄가 확정된 킬링필드 전범은 3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기소된 킬링필드 전범은 총 9명에 그쳤으며 이 중 2명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노환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사드 보복’ 中 금한령, 당국자 시인 발언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제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의 관리가 금한령(禁韓令)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2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광전총국의 편집 담당인 옌웨이이는 지난 8월 자신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에서 금

한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 내용이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옌웨이이는 “한국 연예인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는 목적은 민족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광전총국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서는 없으나 구두로 각 방송국 책임자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중국 매체들은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북극 ‘이상고온’ 평년보다 20도 높아 트럼프 기후협정 탈퇴 재고 여부 주목

이달 북극의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무려 20도가량 상승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유럽 과학자들은 올해 11월 북극 기온을 영하 25도 안팎을 기록하는 평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영하 5도로 관측했다.

이들 전문가는 어둡고 추운 겨울로 접어들어야 할 시기에 북극 기온이 치솟은 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와 올해 강력했던 엘니뇨 현상이 올해 기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엘니뇨보다는 기후변화가 북극의 이상 고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연쇄 효과를 우려했다.

미국 러트거스대학의 기상 과학자 제니퍼 프랜시스씨는 지난 여름 북극 해빙 일대에서 기온이 기록적으로 떨어져 따뜻한 가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극과 그 아래 지역의 기온 차가 줄어 제트기류에 파동이 생기면서 고온 현상이 심화했다고 덧붙였다.

본래 제트기류는 지구 상에서 10km 떨어진 높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북극과 북극 아래 따뜻한 대기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데, 제트기류가 불결 모양으로

변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북극으로 침투할 수 있게 돼 북극 온도가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제트기류의 이 같은 변화는 제트기류가 가뒀놓은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오게 해 아시아, 미국, 유럽 등지에 폭한을 불러오기도 한다.

올해 초 한국, 중국, 미국 동부, 영국 등지에 닥친 강추위도 제트기류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극 지역의 이상 기온과 해빙(海氷)의 변화는 기후변화를 미신으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와 함께 더 큰 우려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워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지난 22일 공개한 북극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1002 구역의 보퍼트해(Beaufort Sea)에서 촬영한 북극곰들의 모습.

/연합뉴스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감정14억

담양, 금성면 토지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 외 13필지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로 바로 옆
- 시세 33억, 매매 - 협의